

텍스트로 오디오 출력... 엔비디아, AI 주도권 확보 속도전

생성형 AI 모델 '푸가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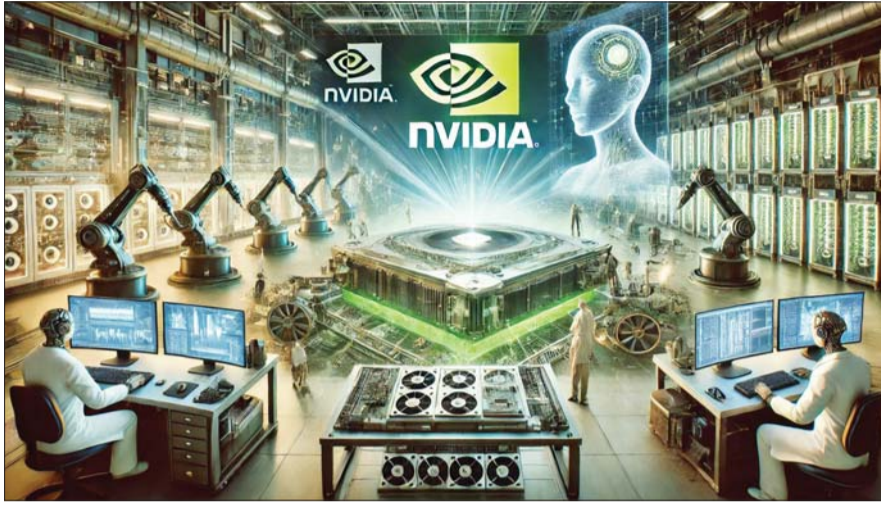
텍스트·오디오 파일 함께 학습
사운드의 모든 조합 생성·변형

업계 "탄탄한 인프라·자본 등에
엔비디아 AISW 개발 시너지 기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발을 넓힌다. 막대한 자본과 세계적인 인재를 뺏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엔비디아가 AI 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텍스트만으로 오디오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 '푸가토(Fugatto, Foundational Generative Audio Transformer Opus 1)'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푸가토는 텍스트와 오디오 파일을 함께 학습해 명령어로 설명한 음악, 음성



Chat GPT가 생성한 엔비디아 관련 이미지.

(가사 등), 사운드의 모든 조합을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다양한 오디오 생성과 변형 작업을 지원하는 푸가토는 여러 훈련된 능력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창발성(emergent property)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초 생성형 AI 모델이다. 창발성은 물리학 등에서 전체 시

스템에서 나타난 특성이 예상한 각개별 조합을 뛰어넘는 현상을 뜻한다.

푸가토는 연구팀이 음성 모델링, 오디오 보코딩, 오디오 이해와 같은 분야에서 쌓아온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생성형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정식 버전은 25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

용하며, 32개의 엔비디아 H100 텐서 코어(Tensor Core) GPU가 탑재된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통해 훈련됐다.

라파엘 발레 엔비디아 응용오디오 연구팀 관리자는 "푸가토는 데이터와 모델 규모에 따라 오디오 합성과 변형에서 비지도 멀티태스킹 학습이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연이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IT 업계는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두고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며 "자사가 사실상 독점 중인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 하는 건 당연히 개발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인프라와 배경 속에서 확보한 막대한 자본을 인재 확보와 개발에 투입한다면 당연히 최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AI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급속한 지형 변화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업계는 매일 급속히 인기 소프트웨어가 바뀌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엔더슨 호로위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4개월 전인 2023년 9월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50위 중 40%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됐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생성형 AI와 결합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AI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스마트폰 시장 변화와 비슷해 이제 혁신 SW 등장과 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음료, 글로벌 입맛 맞춘 상품개발 필요"

삼일PwC, 'Zero or More' 보고서
전체 식품제조업 중, 음료 12.5%
5년간 시장규모 연평균 5.5% 성장

K-음료가 K-푸드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입맛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음료, Zero or More'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 음료 업계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음료류는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료 제조업은 2023년 생산액 기준 전체 식품 제조업의 약 1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류 시장 규모는 2018년 이후 5년간 5.5%의 연평균 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며, 2023년 11조 536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건강·기능성 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배달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성장하며 2021년 전년대비 성장률 11.6%를 기록한 후, 7%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3무 3유'로 요약했다. 3무(無)는 ▲제로칼로리 ▲디카페인 ▲무알코올 주류를, 3유(有)는 ▲기능성 및 고급화 ▲채널 및 제품의 다양화·세분화 ▲친환경을 뜻한다.

눈에 띄는 국내시장의 변화로는 기능성 음료 시장의 두드러지는 성장세와 일부 커피 수종의 차(茶)로 이동 등이 언급됐다. 기능성 음료의 경우, 2020년 12월 일반식품기능성표시제 시행 이후 각종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릴랙스 드

링크, 다이어트 음료, 단백질 음료 등이 대거 출시됐다. 일반식품기능성표시제란 일반 식품이 과학적 근거를 보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쓰는 29종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을 때 표시하는 제도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수요 및 여유와 힐링을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며 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즉석음료(Ready-To-Drink, RTD) 형태의 홍차 제품, 우유와 조합된 제품, 주류에 섞어 마시는 제품 등 여러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정낙열 삼일PwC 소비재산업 리더(파트너)는 "국내 음료 시장이 웰니스와 기능성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음료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음료 시장도 글로벌 트렌드 및 취향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위치 확정

내달 중순 시작... 내년 상반기 결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 탐사 시추 위치가 최종 확정됐다. 시추 작업은 내달 중순 시작돼 2개월이 소요되고, 탐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기재부,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SK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우선 1차공 시추 위치는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01광구(대왕고래 구조)'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위치



는 지난 9월 국내 자원 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한 곳이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 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CC 세라믹·도로 제품 16년째 '세계일류상품'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는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과 선박용 예폭시 방청 도료인 'EH2350 시리즈' 제품이 16년 연속으로, 선박용 방오 도료 'Egis 시리즈'는 1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할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올해로 16년 연속 선정된 진공차단기용 세라믹(VI)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K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HS효성첨단소재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HS효성 이주한 상무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6년 연속 '사회공헌 기업'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공로 인정받아

HS효성첨단소재가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정제로,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는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투명경영) 3개 영역 중 7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영락애니아의 집 후원 및 봉사활동, 마포구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나눔, 장애 어린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지원,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7월 1일 HS효성그룹 출범과 함께 '가치 또 가치'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벤처·스타트업 지원 성과 공유

'퓨처웨이브 데이' 행사 개최

KT는 벤처·스타트업과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퓨처웨이브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올해부터 AICT(AI+ICT·인공지능+정보통신)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KT 퓨처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스타트업 발굴·육성 거점센터인 '퓨처웨이브 랩'을 비롯해 스타트업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퓨처웨이브 비즈', 유망벤처와의 글로벌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

인 '퓨처웨이브 고'와 스타트업의 정보 공유 플랫폼인 '퓨처웨이브 플랫폼'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에 맞춰 지원한다.

전날 행사에서는 판교 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IR 데이'도 함께 열렸다.

또 창업 도약 패키지, 비즈 컬래버레이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등 KT 사업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베슬에이아이, 비전스페이스, 모바힐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KT와의 협업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